



2023.12.04.

국회미래연구원 | 국가미래전략 Insight | 83호

대도시 청년들의 삶의 만족도: 7대 광역시를 중심으로



민보경(삶의질그룹장)



국회미래연구원
NATIONAL ASSEMBLY FUTURES INSTITUTE

국회미래연구원 | 국가미래전략 Insight | 83호

ISSN 2733-8258

발행일 2023년 12월 4일

발행인 김현곤

발행처 국회미래연구원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국회도서관 5층 국회미래연구원

Tel 02-786-2190 Fax 02-786-3977

「국가미래전략 Insight」는 국회미래연구원이 정책고객을 대상으로 발행하는 단기 심층연구결과물로, 내부 연구진이 주요 미래이슈를 분석한 내용을 토대로 국가의 미래전략을 제시합니다.

대도시 청년들의 삶의 만족도: 7대 광역시를 중심으로

민보경(삶의질그룹장)



CONTENTS

1. 서론	05
2. 연구방법	07
3. 분석 결과	10
4. 결론	20

• **대한민국 청년들의 삶에 대한 만족도는 낮은 수준이며, 최근 청년들의 지역 유출 및 수도권 쏠림 현상이 심화**

- 청년들의 삶의 만족도는 OECD 회원국과 비교할 경우 최하위 수준이고, 과거에는 지방 대도시들이 지역 청년인구의 유출을 막는 버팀목 역할을 했으나 최근 지역 청년 유출이 증가하여 사회문제로 이슈화
- 본 연구는 전국 대도시에서의 청년들의 삶이 지역별로 차이가 나타나는지 살펴보고 정책적 시사점 도출
- 본 연구는 국회미래연구원의 2022년 한국인의 행복조사를 활용하여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에 거주하는 20-39세 청년층을 대상으로 삶의 질과 관련된 주요 영역별 변수의 평균값 비교

• **청년들의 삶의 만족도는 지역별로 차이가 발견되었으며, 삶의 질 관련 변수들은 행복감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 관계를 나타냄**

- 청년들의 행복감을 살펴본 결과 부산(7.34점)이 높은 편으로 나타났으며, 인천(6.14점)은 7개 광역시 중 가장 낮게 나타남
- 생활 수준에 대한 만족도는 부산(5.88점)이 가장 높으며 인천(5.77점), 광주(5.80점)는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었으며, 일에 대한 만족도의 경우 부산(7.65점)이 가장 높으며 인천(6.57점), 광주(6.88점)가 비교적 낮은 편
- 대도시에서 체감하는 외로움과 우울감의 빈도는 인천(외로움 1.40점, 우울감 1.37점), 서울(외로움 1.33점, 우울감 1.24점)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
- 출퇴근하는데 걸리는 통근시간은 서울과 인천에 거주하는 청년층의 경우 평균 1시간이 넘는 것으로 나타나 다른 광역시의 거의 2배에 해당되는 것을 확인
- 행복감과 각 변수간의 상관관계를 확인한 결과 일에 대한 만족도, 생활수준 만족도, 안전감 만족도, 미래안정성 만족도가 비교적 높은 정(+)의 상관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밖에 가족생활, 건강, 좋아하는 일을 하는 시간의 양, 동네환경, 대인관계, 공동체소속감에 대한 만족감과 일반적 신뢰 역시 행복과의 정(+)의 상관성 발견
- 반면 외로움과 우울, 통근시간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청년들의 행복과 부(-)의 상관관계를 가지는 것을 확인

• **청년층은 일자리, 교육 등을 이유로 서울, 인천 등 수도권 지역으로 이동하고 있으나 수도권대도시 지역에서의 삶의 만족도는 다른 광역시에 비해 높은 수준은 아니었으며 세부 항목별 지역간 차이를 나타냄에 따라 청년 삶의 질 제고를 위한 지역별 전략 마련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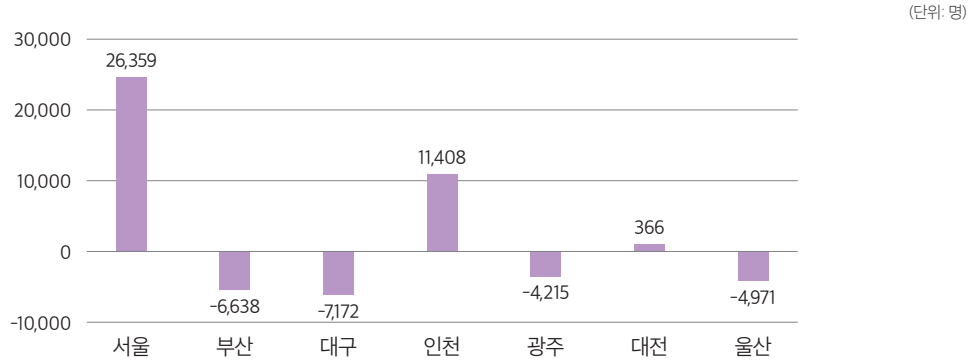
- 서울, 인천 등 수도권 지역에서의 청년층의 유입이 유출보다 많은 순이동을 확인하였으나 청년들의 수도권에서의 삶의 만족도는 높은 수준이 아님
- 서울과 인천에 거주하는 청년들의 외로움과 우울의 빈도가 비교적 높은 편이며 서울과 인천 지역 거주 청년들의 통근시간은 다른 지역에 비해 약 2배 이상으로, 이러한 요인은 서울, 인천에서의 삶의 만족도를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작용
- 부산 거주 청년들의 삶의 만족도는 높은 편이나 청년인구의 유출이 많은 지역이므로 유출의 원인을 파악하여 지역 청년의 삶의 질 제고를 위한 정책적 지원 필요
- 청년층의 삶의 만족도는 광역시별 차이가 나타났으며, 각 지역에 적합한 삶의 질 제고 전략방안 모색 필요

1. 서론

청년들의 수도권과 대도시로의 탈출이 증가하는 가운데, 대도시 청년은 행복할까?

- 우리나라 청년이 체감하는 삶의 만족도는 OECD 회원국 중 최하위 수준
 - 2018년 기준 OECD 회원국의 평균 청년(만 15-29세) 삶의 만족도는 7.7점으로, 우리나라는 6.1점으로 OECD 최하위 수준으로 나타남(OECD, 2018; 하수정 외, 2022 재인용)
- 수도권 및 대도시 지역으로의 쏠림현상이 심화되는 가운데, 대도시지역에 거주하는 청년들의 행복에 대해 돌이켜 볼 시점
 - 지난 5년간(2016-2020년)의 인구유입을 살펴보면 인구유입 상위지역은 대체로 수도권, 광역시와 도의 시 지역인 반면 인구유입 하위지역은 대부분 도의 군 지역인 것으로 나타나 수도권, 광역시로의 인구유입이 많음을 확인(최예술, 2022)
 - 한국노동패널자료를 활용하여 분석한 결과 고향을 떠나 수도권이나 주변 대도시로 유입되는 청년 인구수 추이는 상승하는 추세로 행정안전부가 2021년 지정한 89개 인구감소지역에서 유출된 인구의 평균연령은 36세이며, 유출인구의 67.6%는 10-30대에 해당(최예술, 2022)
- 청년층은 일자리, 교육 등을 이유로 수도권으로의 집중 심화
 - 과거에는 지방의 대도시들이 대학, 일자리 등을 통해 지역 청년인구의 유출을 막는 버팀목 역할을 했으나 최근 지방에서의 청년 유출 심화
 - 2019년 기준 전체 청년 중 지방 소재 대학을 졸업하고 수도권에서 첫 직장을 잡는 비율은 19.4%를 차지하는 반면 수도권 소재 대학을 졸업하고 지방에서 첫 직장을 잡는 비율은 2.5%에 불과(하수정 외, 2022)
 - 과거 10년전과 비교했을 때 최근에는 비수도권의 청년들이 지역 대학에 진학하지 않고 20대 초반에 지역을 떠나 수도권으로 이동하는 비율이 크게 증가(민보경, 2022)
 - 통계청 자료에 근거하여 2022년 한 해동안 서울을 비롯하여,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등 광역시의 20-39세 청년들의 순이동(유입인구-유출인구)을 살펴본 결과, 서울, 인천, 대전을 제외하고 청년들의 유출이 많은 것을 확인

<그림 1> 7대 광역시의 청년(20-39세) 순이동



* 자료: 통계청, 국내인구이동통계(2022)

연구질문: 대도시에서의 청년들의 삶은 어떠할까? 지역별로 차이가 나타날까?

- 본 연구의 목적은 대도시 청년들의 삶의 만족도를 고찰함으로써 청년 정책의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임
 - 청년들은 교육, 일자리를 위해 지역을 떠나 대도시, 수도권으로 모여들고 있으며, 최근 이러한 흐름은 인구감소와 함께 이슈화되고 있는 상황
 - 한편 언론에서 그려지는 서울과 대도시에서의 청년들의 삶은 팍팍한 현실에서 미래를 걱정하는 모습으로 나타남
 - 그렇다면 청년들이 모여드는 대도시에서 청년들은 행복하고, 삶의 만족도는 높게 나타날까? 대도시 청년들의 삶은 지역별로 차이가 나타날까?
 - 본 연구는 대도시에서의 청년들의 삶의 질을 살펴보기 위해 2022년 국회미래연구원에서 실시한 한국인의 행복조사 문항에 응답한 결과에 기반하여 스스로 평가한 영역별 삶의 만족도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함
 - 본 연구에서의 청년은 20대와 30대를 대상으로 하여 20-39세¹⁾ 청년 응답자의 결과를 활용하며, 수도권과 지방의 대도시를 살펴보고자 서울을 비롯하여 6대 광역시(부산, 대구, 인천, 대전, 광주, 울산)를 중심으로 분석함

1) 청년의 연령 기준은 청년기본법(19-34세), 청년고용촉진특별법시행령(15-29세), 서울시 사회적고립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19-39세) 등 관련법과 지자체 조례에서 15세부터 39세까지로 광범위하게 규정하고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지역 청년의 전출입, 지역정책 등과 연계하여 살펴보고자 20대와 30대 즉, 20-39세를 중심으로 분석하였음

2. 연구방법

표본 선정 및 자료 수집

- 본 연구는 국회미래연구원의 2022년 한국인의 행복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분석
 - 한국인의 행복조사 대상은 전국 거주 만15세 이상의 일반 국민이며, 표본들은 통계청 집계구를 활용함
 - 조사방법은 가구 방문하여 가구원 전원을 면접 조사하였고, 조사 완료된 전체 표본 수는 총 7,698가구의 17,045명으로 그 중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등 특별시와 광역시의 7개 지역²⁾에 거주하는 20-39세 청년 2,151명을 대상으로 표본을 선정하였으며 모집단 가중치를 적용하여 분석 실시

자료분석 방법

-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등 7대 광역시에 거주하는 청년들의 삶의 만족도의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7개 거주지역 집단으로 구분하여 비교 분석
 - 본 연구에서 청년들의 삶의 질을 살펴보기 위해 OECD의 Better Life Index, 통계청의 삶의 질 지표 영역을 참고하되 한국인의 행복조사 문항을 검토하여 주관적 웰빙(행복감, 전반적 삶의 만족), 경제적 안정성(소득, 일자리 등), 건강(신체, 정신), 일과 삶의 균형(일, 여가시간, 통근시간), 거주환경(안전감, 동네환경), 공동체(가족생활, 대인관계, 공동체소속감, 신뢰) 등의 영역에서 각 지역의 평균 비교
- 7대 광역시에 거주하는 청년 표본을 대상으로 삶의 질을 설명하는 각 변수와 행복감의 상관관계 분석
 - 청년들의 행복감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관성을 가지는 변수들을 확인함으로써 행복과 관련 있는 요인들을 제시할 수 있음

2) 청년의 삶의 만족도는 경제, 사회, 문화적 생활여건과 관련되어 있어 라이프스타일이 유사한 대도시를 중심으로 살펴보되, 각 지역별 청년들의 삶의 만족도에 차이가 나타나는지 분석하고자 함

<표 1> 분석 대상 표본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지역	특징	구분	비율(%)	지역	특징	구분	비율(%)
서울 (n=616)	성별	남성	49.0	부산 (n=298)	성별	남성	51.6
		여성	51.0			여성	48.4
	연령대	20대	50.4		연령대	20대	50.3
		30대	49.6			30대	49.7
	혼인	미혼	76.7		혼인	미혼	82.7
		기혼	22.5			기혼	15.9
		이혼	0.8			이혼	1.4
	학력	고졸이하	9.7		학력	고졸이하	10.0
		대재졸이상	90.3			대재졸이상	90.0
	개인소득	100만원미만	23.9		개인소득	100만원미만	27.4
		100-300만원	41.3			100-300만원	49.6
		300-500만원	33.4			300-500만원	20.5
500만원이상		1.4	500만원이상	2.5			
대구 (n=265)	성별	남성	53.2	인천 (n=355)	성별	남성	51.8
		여성	46.8			여성	48.2
	연령대	20대	51.5		연령대	20대	48.9
		30대	48.5			30대	51.1
	혼인	미혼	78.5		혼인	미혼	74.5
		기혼	19.7			기혼	25.3
		이혼	1.8			이혼	0.2
	학력	고졸이하	15.9		학력	고졸이하	6.0
		대재졸이상	84.1			대재졸이상	94.0
	개인소득	100만원미만	30.5		개인소득	100만원미만	19.7
		100-300만원	50.2			100-300만원	38.5
		300-500만원	18.3			300-500만원	40.3
500만원이상		1.0	500만원이상	1.7			

지역	특징	구분	비율(%)	지역	특징	구분	비율(%)	
광주 (n=229)	성별	남성	51.7	대전 (n=201)	성별	남성	52.5	
		여성	48.3			여성	47.5	
	연령대	20대	52.9		연령대	20대	52.2	
		30대	47.1			30대	47.8	
	혼인	미혼	72.7		혼인	미혼	79.7	
		기혼	26.9			기혼	20.3	
		이혼	0.4			이혼	0	
	학력	고졸이하	18.9		학력	고졸이하	7.3	
		대재졸이상	81.1			대재졸이상	92.7	
	개인소득	100만원미만	20.1		개인소득	100만원미만	29.9	
		100-300만원	63.9			100-300만원	43.5	
		300-500만원	14.7			300-500만원	20.7	
500만원이상		1.4	500만원이상	5.9				
울산 (n=187)	성별	남성	55.0			남성	55.0	
		여성	45.0			여성	45.0	
	연령대	20대	48.3				20대	48.3
		30대	51.7				30대	51.7
	혼인	미혼	67.7				미혼	67.7
		기혼	32.3				기혼	32.3
		이혼	0				이혼	0
	학력	고졸이하	20.7				고졸이하	20.7
		대재졸이상	79.3				대재졸이상	79.3
	개인소득	100만원미만	25.4				100만원미만	25.4
		100-300만원	56.7				100-300만원	56.7
		300-500만원	16.9				300-500만원	16.9
500만원이상		1.0	500만원이상	1.0				

* 단위: %

3. 분석 결과

1) 7대 광역시 삶의 만족도 차이 분석

주관적 웰빙

- 청년들의 행복감³⁾문항에 대한 응답의 평균값을 지역별로 비교한 결과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남
 - 부산에 거주하는 청년들의 행복감(7.34점)이 가장 높았으며, 대전(7.04점) 청년의 행복감도 높은 편
 - 인천(6.14점)은 7개 광역시 중 가장 낮았으며, 광주(6.50점), 울산(6.66점)은 비교적 낮은 수준
- 청년들의 삶에 대한 전반적 만족도⁴⁾를 살펴보면, 지역별로 행복감과 유사한 결과를 나타냄
 - 부산에 거주하는 청년들의 삶에 대한 전반적 만족도(4.96점)가 가장 높았으며, 대전(4.94점), 서울(4.86점), 대구(4.77점) 순으로 나타남
 - 인천(4.56점)은 낮게 나타났으며, 광주(4.70점), 울산(4.74점)은 낮은 편

<표 2> 주관적 웰빙 관련 변수 평균 비교

변수	지역	평균	표준편차	F	Scheffe
행복감 (10점만점)	서울(a)	6.82	1.105	88668.751***	d<e<g<a<c<f<b
	부산(b)	7.34	.972		
	대구(c)	6.86	1.070		
	인천(d)	6.14	1.169		
	광주(e)	6.50	1.396		
	대전(f)	7.04	1.312		
	울산(g)	6.66	1.178		

3) 전반적으로 귀하는 자신이 얼마나 행복하다고 생각하십니까? (0: 전혀 행복하지 않다 - 10: 매우 행복하다)

4) 나는 나의 삶에 대해 전반적으로 만족한다(1: 전혀 동의 안함 - 7:매우 동의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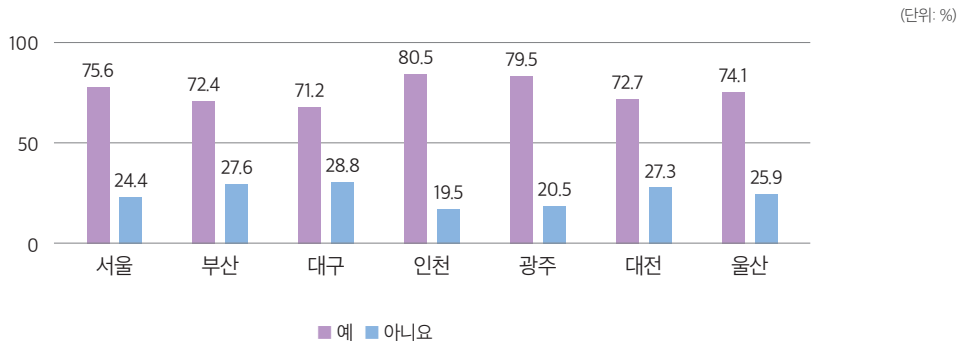
변수	지역	평균	표준편차	F	Scheffe
전반적 삶 만족도 (7점만점)	서울(a)	4.86	.894	19452.579***	d<e<g<c<a<f<b
	부산(b)	4.96	.933		
	대구(c)	4.77	.844		
	인천(d)	4.56	.817		
	광주(e)	4.70	.988		
	대전(f)	4.94	.967		
	울산(g)	4.74	.883		

***p<.001

경제적 안정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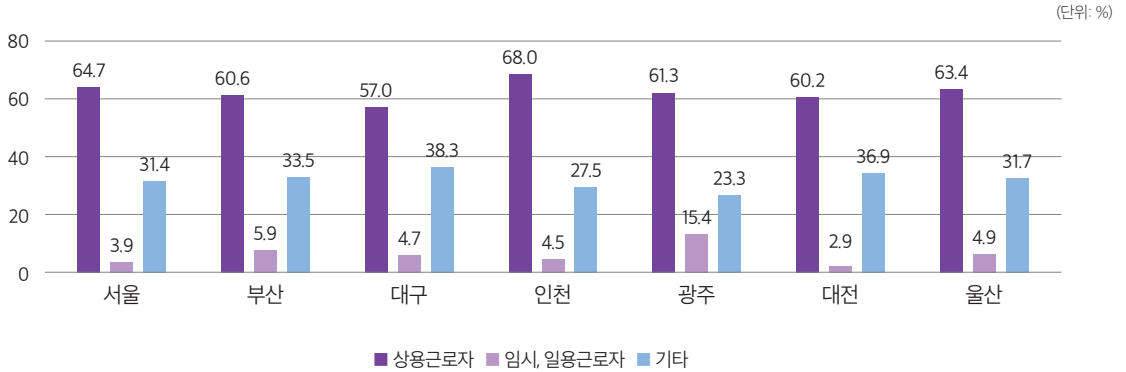
- 지난 일주일간 경제활동 여부를 물어본 결과 70% 이상의 청년들이 경제활동을 했다고 응답
 - 인천의 경우 지난 일주일간 경제활동에 참여한 청년들이 상대적으로 큰 비중(80.0%)을 차지하였으며, 대구가 상대적으로 낮은 비율(71.2%)을 나타냄

<그림 2> 지난 일주일간 경제활동 여부



- 임금근로자의 경우, 상용직, 임시직, 일용직 등 근로유형을 묻는 질문에 대한 응답을 살펴보면, 상용직의 비율이 절반 이상으로 나타남
 - 청년 근로자 중 상용근로자의 비율은 인천(68.0%)이 가장 크게 나타났으며, 대구(57.0%)는 가장 낮은 수준이며 무직과 자영업을 포함한 기타(38.3%)의 비율이 다른 지역에 비해 높게 나타남

<그림 3> 임금 근로자의 유형



- 생활수준 만족도⁵⁾에 대한 응답을 비교한 결과, 지역별 차이를 나타냄
 - 부산(6.88점)이 가장 높은 수준이었으며, 대전(6.60점), 울산(6.26점), 서울(6.25점) 순으로 나타났으며, 인천(5.77점), 광주(5.80점)는 상대적으로 낮은 편
- 미래의 안정성 만족도⁶⁾의 응답을 살펴보면, 대전이 가장 높았으며 광주는 낮은 편
 - 대전(6.72점), 부산(6.69점), 서울(6.25점) 순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광주(5.81점), 인천(6.03점)은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

<표 3> 경제적 안정성 관련 변수 평균 비교

변수	지역	평균	표준편차	F	Scheffe
생활수준 만족도 (10점만점)	서울(a)	6.25	1.319	61937.439***	d<e<c<a<g<f<b
	부산(b)	6.88	1.231		
	대구(c)	6.15	1.297		
	인천(d)	5.77	1.477		
	광주(e)	5.80	1.627		
	대전(f)	6.60	1.438		
	울산(g)	6.26	1.171		

5) 자신의 삶에 있어 생활수준 만족도(0: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 10: 매우 만족한다)

6) 자신의 삶에 있어 미래의 안정성 만족도(0: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 10: 매우 만족한다)

변수	지역	평균	표준편차	F	Scheffe
미래 안정성 만족도 (10점만점)	서울(a)	6.25	1.373	31557.153***	e<d<g<c<a<b<f
	부산(b)	6.69	1.389		
	대구(c)	6.20	1.326		
	인천(d)	6.03	1.361		
	광주(e)	5.81	1.762		
	대전(f)	6.72	1.613		
	울산(g)	6.19	1.400		

***p<.001

건강

- 청년들의 건강 만족도⁷⁾의 경우 다른 영역 만족도에 비해 높은 경향을 보임
 - 서울에 거주하는 청년들의 만족도(7.32점)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부산(7.29점), 광주(7.28점)가 높은 편이었으며, 울산(6.66점)이 가장 낮은 점수를 나타냄
- 정신건강과 관련 있는 외로움⁸⁾과 우울⁹⁾의 빈도 문항에 대한 응답 결과, 수도권 지역에 거주하는 청년들의 증상 빈도가 높은 편으로 나타남
 - 외로움의 경우 인천(1.40점)이 가장 높은 점수이며, 서울(1.33점), 광주(1.25점), 대전(1.20점)의 순으로 높게 나타남
 - 우울감을 느끼는 빈도는 인천(1.37점)이 가장 높으며 서울(1.24점), 광주(1.22점), 대구(1.20) 순으로 나타남

<표 4> 건강 관련 변수 평균 비교

변수	지역	평균	표준편차	F	Scheffe
건강 만족도 (10점만점)	서울(a)	7.32	1.398	13923.776***	g<d<c<f<e,b<a
	부산(b)	7.29	1.414		
	대구(c)	7.13	1.219		
	인천(d)	6.98	1.443		
	광주(e)	7.28	1.857		
	대전(f)	7.20	1.774		
	울산(g)	6.66	1.410		

7) 자신의 삶에 있어 건강 만족도(0: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 10: 매우 만족한다)

8) 지난 2주 동안 외로움 증상 빈도(1: 전혀 없음, 2:일주일 미만, 3: 일주일 이상, 4: 거의 매일)

9) 지난 2주 동안 우울감 또는 절망감 증상 빈도(1: 전혀 없음, 2:일주일 미만, 3: 일주일 이상, 4: 거의 매일)

변수	지역	평균	표준편차	F	Scheffe
외로움 빈도 (4점만점)	서울(a)	1.33	.517	33162.094***	g<b<c<f<e<a<d
	부산(b)	1.16	.393		
	대구(c)	1.18	.416		
	인천(d)	1.40	.560		
	광주(e)	1.25	.528		
	대전(f)	1.20	.444		
	울산(g)	1.13	.349		
우울 빈도 (4점만점)	서울(a)	1.24	.478	22833.220***	g<f<b<c<e<a<d
	부산(b)	1.19	.405		
	대구(c)	1.20	.453		
	인천(d)	1.37	.567		
	광주(e)	1.22	.474		
	대전(f)	1.14	.415		
	울산(g)	1.08	.276		

***p<.001

일과 삶의 균형

- 청년층의 일에 대한 만족도¹⁰⁾는 부산이 높고, 인천이 낮게 나타남
 - 부산(7.65점)이 가장 높으며, 대구(7.15점), 울산(7.09점) 등이 높은 편이며, 인천(6.57점), 광주(6.88점) 등이 비교적 낮은 편
- 청년층의 좋아하는 일을 하는 시간의 양 만족도¹¹⁾는 대전이 높고, 광주가 낮게 나타남
 - 대전(6.82점)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부산(6.78점)도 비교적 높은 편이고, 광주(5.88점)가 가장 낮게 나타났으며 인천(5.91점), 대구(6.16점)도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

10) 귀하는 자신의 일에 대해서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0: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 10: 매우 만족한다)

11) 자신의 삶에 있어 좋아하는 일을 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의 양 만족도 (0: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 10: 매우 만족한다)

- 출퇴근하는 데 걸리는 통근시간¹²⁾을 살펴본 결과, 지역별 차이가 확인됨
 - 청년층이 출퇴근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평균적으로 서울(71.77분)이 가장 길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은 인천(66.01분)으로 나타나 서울과 인천에 거주하는 청년층의 평균 통근시간은 1시간이 넘는 것을 확인
 - 대전에 거주하는 청년층의 평균 통근시간(34.37분)이 가장 짧은 편이었으며, 대구(38.40분), 광주(39.85분)의 경우도 30분대의 통근시간을 나타남

<표 5> 일과 삶의 균형 관련 변수 평균 비교

변수	지역	평균	표준편차	F	Scheffe
일 만족 (10점만점)	서울(a)	6.93	1.208	53077.580***	d<a<f<g<c<b
	부산(b)	7.65	.980		
	대구(c)	7.15	1.042		
	인천(d)	6.57	1.040		
	광주(e)	6.88	1.324		
	대전(f)	7.04	1.272		
	울산(g)	7.09	1.126		
좋아하는 일하는 시간의 양 만족 (10점만점)	서울(a)	6.25	1.438	42594.906***	e<d<c<a<g<b<f
	부산(b)	6.78	1.422		
	대구(c)	6.16	1.487		
	인천(d)	5.91	1.350		
	광주(e)	5.88	1.681		
	대전(f)	6.82	1.588		
	울산(g)	6.34	1.302		
통근시간 (단위:분)	서울(a)	71.77	29.521	214338.274***	f<c<e<g<b<d<a
	부산(b)	43.97	28.236		
	대구(c)	38.40	17.140		
	인천(d)	66.01	34.868		
	광주(e)	39.85	17.367		
	대전(f)	34.37	13.043		
	울산(g)	43.39	21.651		

***p<.001

12) 출퇴근하는데 걸리는 시간

거주환경

- 안전감 만족도¹³⁾는 부산이 높은 편이고, 인천이 낮은 것을 알 수 있었음
 - 청년층의 안전감에 대한 만족도는 부산(6.87점)이 높은 수준이었으며 대전(6.72점)도 높은 편이었으며, 인천(5.98점), 광주(6.07점)에서 비교적 낮게 나타남
- 동네환경 만족도¹⁴⁾는 대전, 부산에서 높게 나타났으며, 인천, 서울에서 낮게 나타남
 - 청년층의 동네환경 만족도는 대전(6.51점)이 가장 높으며 부산(6.44점), 광주(6.31점) 순으로 높은 편이었고, 인천(5.46점), 서울(6.04점)은 비교적 낮은 수준

<표 6> 거주환경 관련 변수 평균 비교

변수	지역	평균	표준편차	F	Scheffe
안전감 만족도 (10점만점)	서울(a)	6.31	1.362	39621.509***	d<a<g<c<f<b
	부산(b)	6.87	1.291		
	대구(c)	6.41	1.212		
	인천(d)	5.98	1.360		
	광주(e)	6.07	1.669		
	대전(f)	6.72	1.466		
	울산(g)	6.40	1.337		
동네환경 만족도 (10점만점)	서울(a)	6.04	1.422	45750.192***	d<a<c<g<e<b<f
	부산(b)	6.44	1.433		
	대구(c)	6.22	1.495		
	인천(d)	5.46	1.298		
	광주(e)	6.31	1.520		
	대전(f)	6.51	1.554		
	울산(g)	6.27	1.312		

***p<.001

13) 자신의 삶에 있어 안전감 만족도 (0: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 10: 매우 만족한다)

14) 자신의 삶에 있어 동네 환경 만족도 (0: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 10: 매우 만족한다)

공동체

- 청년층의 가족생활 만족도¹⁵⁾는 대구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인천과 울산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편
 - 대구(5.93점)가 가장 높은 수준이고, 서울(5.84점), 광주(5.84점) 등도 비교적 높은 편이며, 인천(5.52점)은 가장 낮았으며 울산(5.53점)도 낮게 나타남
- 대인관계 만족도¹⁶⁾는 대전과 부산이 높은 편이고, 상대적으로 인천에서 낮게 나타남
 - 청년층의 대인관계 만족도는 대전(6.89점)과 부산(6.89점)이 높게 나타났으며 광주(6.74점)도 비교적 높은 편이며, 반면 인천(6.32점), 울산(6.47점)은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
- 청년층의 공동체 소속감 만족도¹⁷⁾는 대전과 부산에서 높은 편이고, 인천에서 낮게 나타남
 - 대전(6.61점)과 부산(6.61점)이 비교적 높은 수준이며, 인천(5.94점), 광주(5.96점), 대구(5.97점)가 상대적으로 낮은 것을 알 수 있음
- 청년층의 일반적 신뢰¹⁸⁾수준은 부산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대구가 낮은 편
 - 일반적으로 사람들을 신뢰한다는 데에 대한 동의수준은 부산(3.65점)이 가장 높았고, 서울(3.60점), 울산(3.55점)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대구(3.05점)가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

<표 7> 공동체 관련 변수 평균 비교

변수	지역	평균	표준편차	F	Scheffe
가족생활 만족도 (7점만점)	서울(a)	5.84	.697	29620.104***	d<g<b<e<a<c
	부산(b)	5.82	.624		
	대구(c)	5.93	.670		
	인천(d)	5.52	.680		
	광주(e)	5.84	1.108		
	대전(f)	5.75	1.043		
	울산(g)	5.53	.672		

15) 귀하는 자신의 가족생활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1: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 7: 매우 만족한다)

16) 자신의 삶에 있어 대인관계 만족도 (0: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 10: 매우 만족한다)

17) 자신의 삶에 있어 공동체 소속감 만족도 (0: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 10: 매우 만족한다)

18) 대부분의 사람들은 믿을만하다(1: 전혀 동의하지 않음 - 5: 매우 동의함)

변수	지역	평균	표준편차	F	Scheffe
대인관계 만족도 (10점만점)	서울(a)	6.57	1.360	16689.298***	d<g<a,c<e<f,b
	부산(b)	6.89	1.298		
	대구(c)	6.57	1.441		
	인천(d)	6.32	1.250		
	광주(e)	6.74	1.501		
	대전(f)	6.89	1.655		
	울산(g)	6.47	1.273		
공동체 소속감 만족도 (10점만점)	서울(a)	6.08	1.369	27992.463***	d<e<c<a<g<f,b
	부산(b)	6.61	1.511		
	대구(c)	5.97	1.441		
	인천(d)	5.94	1.361		
	광주(e)	5.96	2.001		
	대전(f)	6.61	1.726		
	울산(g)	6.29	1.393		
일반적 신뢰 (5점만점)	서울(a)	3.60	.621	63326.876***	c<f<e<d<g<a<b
	부산(b)	3.65	.703		
	대구(c)	3.05	.822		
	인천(d)	3.52	.798		
	광주(e)	3.37	.694		
	대전(f)	3.34	.808		
	울산(g)	3.55	.764		

***p<.001

2) 상관 분석

행복과의 상관관계

- 7대 광역시 청년들의 행복과 삶의 질 변수 간의 관계성을 확인하기 위해 상관 분석을 실시한 결과 청년들의 행복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를 나타냄
 - 행복감과 각 변수간의 상관관계를 확인한 결과 일에 대한 만족도가 0.656의 상관관계를, 생활수준 만족도는 0.599, 가족 생활 만족도는 0.517의 정(+)의 상관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음
 - 외로움과 우울은 부(-)의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통근시간 역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청년들의 행복과 부(-)의 상관성을 가지는 것을 확인

<표 8> 행복과 삶의 질 변수 간의 상관분석 결과

설명변수	생활수준 만족	미래안정성 만족	건강 만족	외로움	우울
상관계수	.599***	.522***	.407***	-.137***	-.218***
설명변수	일에 대한 만족	좋아하는 일하는 시간의 양 만족	통근시간	안전감 만족	동네환경 만족
상관계수	.656***	.473***	-.033***	.527***	.444***
설명변수	가족생활 만족	대인관계 만족	공동체 소속감	일반적 신뢰	
상관계수	.517***	.462***	.481***	.247***	

***p<.001

4. 결론

청년 삶의 질 제고를 위한 지역별 맞춤형 전략 필요

- 청년층은 일자리, 교육 등을 이유로 서울, 인천 등 수도권 지역으로 이동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수도권 대도시의 청년 삶의 질 만족도가 높은 것은 아닌 것을 확인
 - 세부 항목별 만족도는 지역간 차이를 보여 청년 삶의 질 제고를 위한 전반적인 전략과 지역별 전략 마련 필요
 - 인천, 서울에 거주하는 청년들의 동네환경 만족도가 지방 대도시 청년들의 만족도 수준보다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 수도권의 높은 주거비용에 비해 기대 수준에 못 미치는 여건인 것으로 판단됨
- 청년들의 삶의 만족도는 지역별로 차이가 발견되었으며, 삶의 만족도를 포함한 삶의 질 관련 변수들과 행복감 간의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 확인
 - 예를 들면, 부산 청년들의 행복감(7.34점)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인천(6.14점)은 상대적으로 낮은 편으로 나타났고, 상관 분석 결과 다양한 삶의 질 관련 요인들이 행복감과 관련성이 있는 것을 확인하였음
 - 다만, 대도시별 청년 행복의 차이나 행복 메커니즘을 이해하기 위해 향후 회귀분석 등 통계분석, 지역적 맥락에 대한 구체적 이해와 관찰, 심층 인터뷰 등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
- 청년들의 행복감에는 ‘일’, ‘생활수준’, ‘안전감’ ‘미래안정성’ 등이 상대적으로 높은 상관관계를 보임
 - 행복과 상관관계가 높은 삶의 질 변수로는 ‘일’과 ‘생활수준’, ‘미래안정성’ 등으로 나타나 주로 미래의 삶과 경제적 요인이 비교적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대인관계’, ‘건강’, ‘동네환경’, ‘일반적 신뢰’ 등 사회관계적 변수와의 상관성은 상대적으로 낮음
- 수도권 대도시 청년층이 느끼는 사회적 고립감은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
 - 서울과 인천은 청년들의 유입이 많은 지역으로 2022년 한 해 동안 서울은 26,359명, 인천 11,408명의 순이동이 발생하여 청년들이 모여드는 지역인 반면, 외로움과 우울의 빈도가 비교적 높은 편으로 나타남
 - 우울감, 외로움은 사회적 고립에서 발생할 수 있으며, 사회적 고립은 개인의 선택이 아닌 비자발적인 요인에 의해 개인과 사회와의 상호작용이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사회의 일원으로서 누려야 할 권리로부터 배제되어 외부와 고립된 상태를 의미(김춘남 외, 2018)하므로 청년들의 사회적 고립 예방을 위한 지원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

- 교통 여건 등 정주여건의 개선으로 수도권 대도시 청년층의 삶의 질을 향상할 수 있음
 - 통근시간과 행복에 있어 부(-)의 상관관계를 확인하였으며, 광역시별로 통근시간을 비교한 결과 서울 청년들의 통근 시간은 평균 71분, 인천은 66분으로 다른 도시들과 비교할 때 약 2배 이상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나 수도권 지역 청년의 삶의 질 제고 전략으로 교통의 편의성을 고려할 필요
 - 청년 이동의 압도적인 요인은 일자리이지만 청년이 정착하는 과정에서 일자리와 함께 주거 비용, 대중교통 편의성 등도 함께 고려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므로(하수정 외, 2022) 수도권 지역의 청년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대중교통 편의성 제고 전략 필요

일자리는 청년 이동의 핵심 요인이며, 양질의 일자리 마련을 위한 정책 다각화 필요

- 청년층의 일자리는 주거이동을 위한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므로 청년정책의 핵심 영역으로 다룰 필요
 - 통계청 국내인구이동통계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청년층 전입사유로 '직업'의 비율이 가장 높아 청년의 전체 이동 중 20대는 40.9%, 30대는 33.3%가 직업으로 인한 이동
 - 한국인의 행복조사(2022) 자료를 활용한 분석 결과, 일에 대한 만족도, 생활수준에 대한 만족도가 행복과의 상관계수가 높은 편으로 청년층 행복감 향상을 위해 양질의 일자리, 경제적 안정성을 위한 정책적 노력 필요
 - 본 연구의 청년 표본 분석 결과 인천과 서울은 근로자 중 상용근로자의 비중이 높은 편으로 나타났으며, 구간별 월 소득분포를 살펴보면 300-500만원의 비중이 타 지역에 비해 높게 나타나 이러한 일자리 요인들이 다른 지역에서의 청년들을 유입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
 - 지역별 세밀한 추가 분석을 통한 청년 일자리 전략 마련이 필요하며, 예를 들면 부산의 경우 일자리 만족도, 생활수준 만족도는 높은 수준이나 청년들의 유출이 많은 지역으로 확인되어 지역청년들의 삶의 만족도, 사회적 이동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적 맥락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 필요

참고문헌

김춘남·박승민·박승희·김서인(2018) 사회적 고립의 유형분석 및 지원방안, 경기복지재단.

민보경(2022) 청년은 어느 지역에 살고, 어디로 이동하는가? 국가미래전략 Insight 58호, 국회미래연구원.

유민상·신동훈·이민정(2021) 청년의 사회적 고립 실태 및 지원 방안 연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최예솔(2022) 인구감소지역의 인구변화 실태와 유출인구 특성 분석, 워킹페이퍼(WP22-06), 국토연구원

하수정·이차희·심혜민·이종표(2022) 청년의 지역이동과 정착, 균형발전 모니터링 & 이슈 Brief, 제11호, 국토연구원.

OECD(2018) How's Life? Well-Being

Zavaleta, D., Samuel, K., & Mills, C. T.(2017). Measures of social isolation. Social Indicators Research, 131(1), 367-391.

국가미래전략 Insight 발간현황

발행일	제목	작성자	vol
2023.12.04.	대도시 청년들의 삶의 만족도 : 7대 광역시를 중심으로	민보경	83
2023.11.06.	이머징 시티즌으로서 원폭피해자 증언과 미래의 평화구축(Peacebuilding)	김태경	82
2023.10.30.	디지털제품여권 도입에 관한 미래전망 및 대응방안	김은아	81
2023.10.16.	지속 가능 주거체제를 위한 주택 부문 정책 의제	이선화	80
2023.09.25.	중대재해처벌법 제정의 정치과정 : 의회의 역할을 중심으로	정혜윤	79
2023.09.11.	재생에너지 단계별 주요 갈등 이슈 분석과 시사점	정 훈	78
2023.09.04.	“트리플 트랜지션(Triple Transition)” - 디지털 전환, 녹색 전환, 그리고 국제질서 전환	차정미	77
2023.08.28.	한국사회는 외국인과 어떻게 관계 맺고 있는가 : 이민 정책 방향 모색을 위한 시론	이상직	76
2023.08.14.	지역주민들의 미래예측과 비전의 유용성 : 부산시민과 미래대화 사례 연구	박성원	75
2023.08.07.	1인 가구 유형 분석과 행복 제고를 위한 시사점	민보경	74
2023.07.31.	민주화 이후 한국의 노동정치 - 한·미·일 비교 분석	정혜윤	73
2023.07.24.	공공정책은 누가 결정하는가? - 갈등적인 정책의제에 대한 대통령과 국회의 상호작용 분석	박현석	72
2023.06.26.	국제질서의 변화와 공급망 전략	박성준	71
2023.06.05.	평화구축에 대한 서울지역 여성의 미래대화	김태경	70
2023.05.22.	좋은 사회로의 대전환 - 쉐림사회에서 개성사회로 -	김현곤	69
2023.05.15.	2050년, 우리는 어떤 국제질서를 원하는가?: 세계질서 대전환의 7대 트렌드와 세계의 선호미래	차정미	68
2023.05.01.	만들어진 당원 : 우리는 어떻게 1천만 당원을 가진 나라가 되었나	박상훈·정순영·김승미	67
2023.04.17.	미래사회 대응을 위한 소득과 고용 분야 정책지표 : 현황과 과제	이선화	66
2023.04.10.	플라스틱 순환경제 시나리오와 미래전략	김은아	65
2023.03.20.	한국 청년은 언제 집을 떠나는가 : OECD 국가 비교	이상직	64
2023.03.06.	우리나라 혁신체제의 새로운 전환점 : 학습순환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주요 전략과제	여영준	63
2023.02.27.	노동 안전 분야의 마그나카르타, 로벤스 보고서 누가, 왜, 어떻게 만들고 실현할 수 있었나	박상훈	62
2023.01.09.	2050년 대한민국 미래전망과 대응 전략	국회미래연구원	61
2023.01.02.	‘양극화’ 문제에 대한 국회의 대응	박현석	60
2022.12.12.	인재의 혁신역량 향상을 위한 대학교육 개선 방향 : 학습지원 방향 및 진단지표 개발	성문주	59
2022.11.28.	청년은 어느 지역에 살고, 어디로 이동하는가?	민보경	58

발행일	제목	작성자	vol
2022.11.14.	탈석탄 갈등의 주요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통한 정의로운 전환 정책에서의 시사점 : 노동자 및 지역주민 대상	정 훈	57
2022.10.31.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미래 정책과 회복탄력적 혁신전략	여영준	56
2022.10.24.	일본의 정년정책 : 한국과 비교의 관점에서	정혜윤	55
2022.10.17.	대통령제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	박상훈	54
2022.09.19.	이머징 이슈 탐색 플랫폼의 이해와 활용	김유빈	53
2022.09.05.	미래 인구구조 변화와 노후소득보장제도	유희수·우해봉	52
2022.08.22.	국내 탈석탄 과정의 주요 갈등 이슈와 이해관계자 분석	정 훈	51
2022.08.08.	한국인의 분배 인식 : '능력주의' 논의에 대한 시사점	이상직	50
2022.07.25.	한국 복지체제의 대안적 전략 구상	이선화	49
2022.07.11.	1인 가구의 행복 분석	민보경	48
2022.06.13.	생애주기별 사회적 위험 분석 : 소득 수준과 빈곤 경험에 따른 차이를 중심으로	이채정	47
2022.05.30.	노동시장 취약계층 사회적 이동성 향상을 위한 평생학습 정책 제언	성문주	46
2022.05.16.	미래 전망의 프레임과 개선안	박성원	45
2022.05.02.	'국가'와 '국민'을 줄여 써야 할 국회	박상훈·문지혜·황희정	44
2022.04.18.	기후변화 5대 영향 영역과 적응입법 아젠다	김은아	43
2022.04.04.	디지털전환 시나리오별 한국 경제사회의 중장기 변화 전망과 시사점	여영준	42
2022.03.21.	코로나19 이후 미국 경제정책 패러다임 전환과 시사점	이선화	41
2022.03.07.	타협의 정치와 갈등 관리 : 한국 법인세율 결정과정 분석	박현석	40
2022.02.21.	대한민국의 미래와 교육 : 교육아젠다 10선	김현곤	39
2022.02.07.	2021년 「한국인의 행복조사」 주요 결과	허종호	38
2022.01.24.	장애인 운동 20년, 장애 입법 20년 : '이동권'에서 '탈시설'로	이상직	37
2022.01.10.	미래비전 2037 - 성장사회에서 성숙사회로 전환 -	김유빈	36
2021.12.30.	탄소국경조정 메커니즘 대응 산업지원 정책과제와 정책효과 분석	정 훈·여영준	35
2021.12.23.	인구총격에 대응하는 지역의 미래 전략 : 완화와 적응	민보경	34
2021.12.16.	저출생·고령사회 심화에 따른 사회서비스 전달체계 개선 방향 검토 : 아동 및 노인 대상 주요 사회서비스 시설의 분포 분석을 중심으로	이채정	33
2021.12.09.	청년층의 기업가정신 향상을 위한 대학교육 방향 탐색	성문주	32

발행일	제목	작성자	vol
2021.11.18.	복지재정 효율화를 위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복지사업 분담체계 개편 전략	이선화	31
2021.11.04.	에너지수요관리 증장기 발전 방향 제시	조해인	30
2021.10.21.	디지털화폐의 등장과 금융시스템의 변화 전망	박성준	29
2021.10.07.	국회의원 보좌진들이 바라보는 미래 정책과 국회	박현석	28
2021.09.16.	탄소국경조정 메커니즘 도입에 따른 국내 산업계 영향과 대응방안	여영준·조해인·정 훈	27
2021.09.03.	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전직지원서비스 정책 주요 이슈와 제언	성문주	26
2021.08.19.	어디 사는지에 따라 행복감이 달라질까? 도시와 비도시 지역의 행복요인	민보경	25
2021.08.05.	재난을 넘어, 혁신을 넘어: 미래를 위한 혁신 정책의 대전환	전 준	24
2021.07.22.	대량 문헌탐색 기반 이머징 이슈 도출: 디지털 전환(digital transformation) 분석 사례	김유빈	23
2021.07.08.	높은 자살률, 무엇이 문제이고 무엇이 문제가 아닌가: 국민통합의 관점에서 본 한국의 자살률	박상훈	22
2021.06.24.	선호미래로 향하는 우회도로	박성원	21
2021.06.10.	새로운 국가발전모델의 제안	김현곤	20
2021.05.27.	인구감소시대의 보육·유아교육 서비스 전달체계 개선 방향 탐색	이채정	19
2021.05.13.	일하는 국회의로의 전환을 위한 제도적 조건	조인영	18
2021.04.29.	행복조사의 필요성과 한국인의 행복 실태	허종호	17
2021.04.15.	국가장기발전전략 탐색에 따른 개혁의제 제언	이선화	16
2021.04.01.	미래 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중장기계획의 도전과제와 혁신방안: 과학기술 부문을 중심으로	여영준	15
2021.03.18.	국내외 에너지전환정책 현황 및 시사점	정 훈	14
2021.03.04.	동북아 지역의 국제 갈등 양상과 무역분쟁: GDELT를 중심으로	박성준	13
2021.02.18.	코로나19와 함께 한 1년: 국민의 삶은 어떻게 변했는가?	허종호	12
2021.01.21.	심리자본과 사회자본 확충을 위한 진단 및 교육정책 과제	성문주	11
2021.01.07.	한국인의 미래 가치관 조사	민보경	10
2020.12.24.	세계적 감염병 이후 사회 변화	박성원·김유빈	9
2020.12.10.	디지털 전환에 따른 한국 경제사회 파급효과 분석과 정책적 시사점	여영준	8
2020.11.26.	기후변화 영향 대응현황 및 제언(국내 연구·정책에 대한 양적 비교를 중심으로)	김은아	7
2020.11.19.	보존분배사회 전환을 위한 국민의 선택	박성원·정영훈	6
2020.11.12.	고령화 대응 국가전략을 만드는 새로운 방법	김현곤	5

발행일	제목	작성자	vol
2020.10.15.	더 많은 입법이 우리 국회의 미래가 될 수 있을까	박상훈	4
2020.09.17.	2050 대한민국 미래와 정책의제	김홍범	3
2020.09.03.	2050년 서른살, 민서가 바라는 미래	박성원	2
2020.08.20.	2050년 대한민국 미래예측과 국회가 주목한 11대 국가 개혁과제	김유빈	1

• 이 자료는 국회미래연구원 홈페이지(www.nafi.re.kr) 및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